

행복을 그리시는 아버지

정 재 홍 · 중대부속초등학교 4

도넛, 구름, 천사, 화이팅!" 아버지께서 퇴근을 하시면 나는 항상 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아버지의 신기에 가까운 마술 쇼를 본다.

"아버지, 이번에는 천사요." 라고 주문을 하면 아버지께서는, "수리 수리 마수리 업!"

하시면서 담배 연기로 금방 하늘에 떠 있는 천사를 그려 주곤 하신다. 그러면 나와 여동생은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한 천사 연기를 손가락 사이로 흘려 보내고는 다음 주문을 계속한다.

"아버지, 이번에는 도넛이요. 또 이번에는 구름이요..."

이렇게 한비탕 시끄러운 미술이 끝날 때쯤이 되면 어머니께서,

"여보, 이제 담배 좀 줄이세요. 아이들한테도 건강에 좋지 않으니 회사에서도 담배를 조금만 피우시고 집에서도 피우지 마세요." 라고 하신다.

그러면 아버지와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치고는,

"애들아, 엄마 잔소리가 시작되었으니, 우리 오늘의 공연은 끝내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신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말씀과 행동을 잘 이해할 수 없어서 서운하기도 하고 아쉽기

도 했다.

하지만 얼마 전 너무나 큰 일을 겪고 난 후에는 어머니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고 나의 철없던 행동을 반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엄청난 일은 정말로 소리 없이 우리 가족에게 다가왔다.

창가의 햇살이 따스하게 느껴지는 얼마 전 봄날.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자 어머니께서는 전화를 받으시더니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며 멍하니 봄 햇살을 바라만 보고 계셨다. 나는 너무나 이상해서,

"엄마, 누구 전화예요?"

라고 여쭙어 보았더니, 어머니께서는 이렇다 할 말씀도 하지 않으시며 간단하고 조용하게,

"외할머니시다." 라고만 하셨다.

아버지께서 퇴근하시는 시간이 오늘은 정말로 길고 길게만 느껴졌다.

"딩동, 딩동"

벨 소리에 놀라 얼른 현관으로 나가 인사를 하자,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의 인사를 받는 등마는 등 하시고는 엄마를 찾으셨다.

나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자 정말로 나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엄마의 말씀을 듣고 나도 모르게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외할아버지께서 폐암이시라니!'

정말로 놀라고 믿겨 지지 않았다. 아버지께서는 엄마에게 아직 초기이니 너무 걱정을 하지 말고 다음 달에 할아버지가 계신 미국에 다녀오자고 하시면서 엄마를 위로해 주셨다.

'폐암은 왜 걸리는 것일까?' 라고 생

각하니 너무나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께 여쭙어 보니 다른 이유도 많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담배를 많이 피우셨기 때문일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

슬퍼하시는 엄마를 보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다. 그리고 얼마 전 아버지가 미술 연기 쇼를 할 때 엄마가 하셨던



말씀도 이해가 되었다.

지금도 외할아버지께서는 미국에서 병원에도 다니시고 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 라고 생각하니 나의 마음도 아파

담배 값으로 점심을 먹어요

임 예 정 · 동북초등학교 4

더 칠 전, 우리 고모부께서 돌아가셨다.

나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셨는데, 하늘 나라로 가시고 말았다. 난 너무나 슬퍼서 수업 시간에도 자꾸만 눈물이 났다.

그런데, 고모부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폐암 때문이라고 하셨다. 폐암은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 걸릴 확률이 많다고 아빠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우리 집 안방에, 거실에, 또 화장실에, 그리고 아빠 자동차에까지 “금연”이라고 빨간 매직으로 글씨를 써서 붙여 놓았다.

아빠께서 보시고는,

“아니! 이게 뭐야?” 하셨다.

“아빠! 전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는 게 싫어요. 아빠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이제부터 아빠의 건강은 제가 지킬 거예요.” 했더니, 아빠께서 웃으시며,

“그래, 우리 예쁜 공주를 두고 아빠가 일찍 죽으면 안되지. 오

늘부터 아빠, 담배 끊었다.” 하셨다.

그날부터 우리 집 재떨이는 화분 받침대로 변했고 아빠 자동차의 재떨이는 동전 통으로 변했다.

“아빠! 가왕 아빠가 담배를 끊으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그냥 끊겠다고 하면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빠가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우니까 담배 값 천백 원씩을 매일 저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면 삼만 삼천 원, 일년이면 삼십 구만 육천 원이에요. 그 돈을 모아서 결식 아동을 돕는 데 쓰는 거예요.”

“왜 그거 좋은 생각이다.”

엄마와 오빠는 박수를 쳤다.

“만약에 아빠가 하루 담배를 피우시면 한 어린이가 점심을 굶는 거예요.”

“아! 이거 꼼짝없이 끊어야겠는데”

“하지만 아빠! 아빠의 담배 값으로 점심을 먹은 어린이가 사실을 안다면 그 어린이는 아마 어른이 되어서도 담배를 피우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아빠의 저금통은 희망을 안겨 주었다. **㉞**

졌다.

그 일이 있은 후 지금 우리 아버지께서는 담배도 많이 줄이시고 우리에게 도넛, 구름, 천사를 그려 주시는 대신 가장 값지고 멋진 우리 가족의 행복을 그려 주신다.

“아빠, 화이팅!!” **㉞**